

온 세상을 위한 성탄

이사야 11:1-10, 누가복음 2:8-14

최정웅 목사님

이미 칸타타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부 노래해 주었다. 같이 인사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대 여러분, 이주 수고하셨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칸타타로 듣고 노래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향한 성탄이었다, 온 세상을 위한 성탄이었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러 오셨다.

첫째로, 온 세상이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이다.

(1) 주님이 오시기 전의 온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는 잘 보았다. 로마서 5:12에,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3:23은 말씀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8:44은 말한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0:38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마귀에게 눌리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9:36-38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서 살다가 완전히 지옥 가게 된다, 멸망당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6:23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이다.

(2) 그렇게 된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9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했다. 요한복음 8:12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고백한다. 누가복음 2:32-36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빛으로, 영광으로 오신 것이다.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한다.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한다. 세상을 멸망시키려 오셔도 할 말이 없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려, 살리러 오신 것이다.

(3) 어떻게 살리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참 선지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6의 말씀이다. 참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 9:12의 말씀이다.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8:1-2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9:30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히브리서 10:20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오늘 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이 최고로 기뻐해야 할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이다. 온 세상을 향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고 즐겨워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한다.

2.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온 세상을 향한 최고의 메시지다. 다시 말해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다.

(1)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16의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듣지 않고 누가 믿겠는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10:13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24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12은 말씀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1:16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다.

(2)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0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말씀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시다. 온 세상이 받을 소식인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고 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다. 그분이 누구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

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1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서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외로워하지 마라, 주님이 계신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말씀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외로움이 물러가고, 조울증이 물러가고, 완전한 답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지 않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지 않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 속에 오신 이후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은가. 나는 어릴 때 들었던, 목사님 딸이 불렀던 노래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복된 노래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참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절은 내가 붙였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할 일도 알았습니다. 생명의 구주는 예수, 만민의 구주는 예수,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갈 길을 찾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타락하는 날, 노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 이 타락과 재앙 문화를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타락의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경건하게, 감사하면서 성탄을 보내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 말은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아니다. 우울하게 있으라는 말도 아니다.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으로 들떠야 한다. 그 기쁨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내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후대에게 들려줘야 한다. 시간을 꼭 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받았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후대에게 성탄의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어제 당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가니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 노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성탄 트리를 굉장하게 만들고 축하 메시지를 했다. 다시 성탄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기념일인데, 그 날을 할로윈데이라고 귀신놀이를 한다. 그 놀이가 점점 번창해서 성탄절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 아이들이 미친다. 희한한

일이다. 악령은 살아있다. 악령은 마지막 때 발악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성탄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집집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란다. 여러분 가정이 성탄 문화를 회복하고 개혁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문화 정복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는다. 조용하고 정갈하고 은은하면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성탄의 문화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드시기 바라고, 아이들과 함께 성탄에 대한 성구를 찾아 읽어보면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란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탄절에 누렸던 것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성탄절 자체가 문화 정복이 되도록,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온 세상을 향해 기쁜 성탄을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한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창조주이신 당신이 인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모유를 주고 나를 돌봐달라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의미요 가치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을 타락의 문화로 만들지 말고 재창조의 문화로 만들어, 행복의 문화, 구원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만드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